

제15호 (주)삼양제넥스 인천공장 고완천 과장



가족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나부터 안전에 앞장서자!

따뜻한 햇살과 시원한 바람이 옷깃을 스치는 5월! 파도 넘실되고 갈매기의 울음소리가 정겨운 인천에 바다만큼이나 넉넉하고 정감있게 웃음짓는 (주)삼양제넥스 인천공장 안전지원팀의 고완천과장을 이달의 자랑스런 안전인으로 소개한다.

■ 생산업무에서 안전업무까지

(주)삼양제넥스는 1964년에 설립되어 포도당, 물엿, 과당, 전분, 옥분, B₆제품(제넥솔) 등을 생산하는 업체로 1976년 인천공장을 준공한 후 꾸준한 설비 합리화와 공정기술 개발로 국내 전분당 업계를 선도해 오고 있다.

1973년 2월 인천공장이 탄생하기 전부터 삼양제넥스의 일원으로 근무해 온 고완천과장은 생산업무를 28년 가량 담당해 오다가 전임자의 퇴사로 적격자 선정에 고심하던 중 현장 경험이 풍부한 고완천과장이 무재해·무사고 실현에 책임일 것이라는 부사장의 추천으로 2000년 10월부터 안전, 보건, 방화, 고압가스 등의 업무를 담당하게 되었다.

실무의 경험이나 지식은 그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지만 안전관련법규 등 이론적인 측면은 익숙치 않아 협회나 타 기업의 안전담당자들에게 조언을 받으며 항상 배움의 자세로 임한다는 그에게서 버는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는 속담이 떠오르는 건 어찌면 당연한 것이 아닐까 생각된다.


■ 근로자의 편에서 열린 마음으로 실천하는 안전

(주)삼양제넥스 인천공장의 안전모는 조금 남다르다.

턱끈은 흘러내리지 않도록 고무줄로 되어 있고 안전모 뒤에는 ‘안전보건 11대 기본수칙’이 자리하고 있다. 근로자들이 동료의 안전모에서 기본수칙을 숙지하고 지키며 사고의 당사자가 될 수 있는 자신뿐만 아니라 동료의 안전까지 가족처럼 서로 지키자는 의미인 것이다.

현장에서의 그는 아버지나 형과 같은 존재로 일반적인 지시나 강요보다는 근로자들의 입장에서 왜 지키지 않는지를 관찰·분석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등 마음과 마음이 열려야 진정한 안전이 이룩된다고 말한다.

지키려해도 지켜지지 않는 게 안전이듯 벗어나기 시작하면 그 끝을 헤아릴 수 없는 것 또한 안전이기에 원리, 원칙의 기본을 삼양제넥스화하여 지키자고 고완천과장은 항상 강조한다.

오는 6월 11일이면 (주)삼양제넥스 인천공장은 무재해 3배를 달성한다. 끈끈한 가족애를 느끼고 돌아온 이 곳에서 무재해 3배는 필히 이룩되리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 

〈성호연기자〉